

주방자동화 푸드테크 스타트업 '신스타프리젠츠', 엔젤투자자 3명으로부터 시드머니 8억원 투자유치 이뤄

작성자: 김지윤 기자 - 2020년 5월 6일 오후 12:39



신스타프리젠츠' 제품개발 품평회(사진제공=신스타프리젠츠)

[이뉴스코리아 김지윤 기자] 주방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신스타프리젠츠(SHIN STARR presents)가 이번달부터 프리(Pre) 시리즈A 자금유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. 신스타프리젠츠는 기술개발 및 복미를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개척 비용으로 이번 조달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다.

신스타프리젠츠는 올해 초 엔젤투자자 3명으로부터 시드머니로 8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. 이를 통해 IoT 기반 자동볶음기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, 최근에는 무인 자동조리트럭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'강호동백정'으로 잘 알려진 육칠팔(678)의 총괄전무를 거쳐 지오스 에어로젤, 비티비엘 등 제조회사에서 글로벌사업개발을 담당한 신기철 공동대표는 "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외식산업이 어려워

진 반면에, 비대면/무인화 시장규모는 급격히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”며 “내년 하반기 중 무인 자동조리트럭을 샌프란시스코서 상용화하려는 당사에 있어 오히려 큰 기회로 작용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신스타프리젠츠는 신기철 공동대표를 비롯해 모건스탠리자산운용,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서 12년간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신종명 공동대표, 미(美) 듀크대 이상록 공학박사가 2019년 11월 한국에서 공동 설립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다.

저작권자 © 이뉴스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김지윤 기자

매거진 이뉴스코리아 편집장 이뉴코 부장 (heart@enewko.com)